

## ‘MLS 첫 해트트릭’ 손흥민, 평점 9.7... “손세이셔널!”

L AFC, 18일 MLS 원정서 4-1 승리  
손흥민, 미국 입성 후 첫 해트트릭  
최우수 선수... MLS 사무국도 주목

손흥민(33)이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입성 후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로스앤젤레스FC(LAFC)를 승리로 이끌었다.

LAFC는 18일 오전 10시30분(한국 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4-1 승리를 기록했다.

13승8무7패(승점 47)가 된 LAFC는 한계단 상승한 리그 4위에 자리했다.

손흥민의 활약이 빛났다.

이날 4-3-3 포메이션에서 두 번째 ‘3’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다.

9월 A매치 미국전(2-0승), 멕시코전(2-2 무), MLS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스전(4-2 승)에 이어 공식전 4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흐름을 탄 손흥민은 전반 16분 박스 밖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MLS 입성 후 첫 멀티골을 터트렸다.

후반 12분 골대를 맞추는 불운도 있었으나, 후반 37분 MLS 첫 해트트릭을 완성

하며 상승세에 방점을 찍었다.

데니스 부양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이날 3번째 골은 왼발로 마무리했다.

이후 손흥민은 후반 41분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와 교체되면서 경기를 일찍 마무리했다.

플타임을 소화하지 않았으나,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통계 매체 ‘풋몹’은 손흥민에게 평점 9.7을 부여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고 시사했다.

손흥민은 3골을 포함해 패스 성공률 89%(19회 시도 17회 성공) 등 공격은 물론, 태클 1회, 리커버리 3회 등 수비적인 부문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만큼, MLS 사무국도 손흥민의 활약을 주목했다.

MLS 측은 “손세이셔널(손흥민+센세이셔널)! LAFC의 슈퍼스타가 MLS에서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며 공식 홈페이지를

손흥민은 이날 활약으로 MLS 6경기 5골1도움을 기록, 경기당 1개의 공격포인트를 작성하게 됐다.

/뉴시스



## 1위 전쟁 안 끝났다... 격차 좁혀가는 진격의 한화 상승세 타는 2위 한화, 최근 11경기서 9승 수확

프로야구 선두 LG 트윈스가 독주 체제를 형성해 1위 싸움이 그대로 막을 내릴 것처럼 보였으나 상황은 달라졌다. 2위 한화 이글스가 무서운 기세로 차곡차곡 승리를 쌓아가면서 역전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

한화는 지난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솔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노시환, 루이스 리베라도의 홈런포와 선발 류현진의 5이닝 2실점 호투에 힘입어 6-2로 이겼다.

이로써 한화(79승 3무 53패)는 전날(17일) KT 위즈전인 우천 취소돼 경기를 치르지 않은 LG(81승 3무 50패)와 승차를 2.5경기까지 좁히는 데 성공했다. LG의 정규시즌 1위 확정 매직넘버는 '8'이다.

이달 초 두 팀의 승차가 5.5경기까지 벌어지면서 LG가 1위 확정에 성공 다가섰지만, 최근 한화가 가파른 상승

세를 타면서 다시 사정권에 들어갔다. 한화는 지난 11경기에서 9승(2패)을 쓸어 담으며 추격에 박차를 가했다.

정규시즌 종료까지 LG는 10경기, 한화는 9경기로 잔여 경기가 많지 않아서 여전히 LG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다만 두 팀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어 LG는 1위를 장담할 수 없다.

한화와 LG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운명의 3연전을 치른다. LG가 한화와 마지막 3연전을 치르기 전에 1위를 확정하지 못하면, 이 시리즈는 1위 싸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LG는 한화와의 맞대결에서 사활을 건다. 엄경엽 감독은 일찌감치 한화와 3연전에 출격할 선발 투수들을 낙점했다. 팀의 1, 2, 3선발인 앤더스 톨러스트, 요니 치리노스, 임찬규가 차례로 등판할 예정이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 한국 육상 역사 쓴 우상혁... 포상금도 ‘억소리’ 나네

올해 국제대회 우승 7회·준우승 1회로 2억4000만원 이상 상금 수령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메달 2개를 거머쥔 ‘스마일 점퍼’ 우상혁(29·용인시청)이 1억원에 가까운 대회 상금과 포상금을 챙긴다.

우상혁은 16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넘어 은메달을 땀다.

금메달을 목에 건 해미시 커(뉴질랜드)의 2m36보다 2cm 낮았다.

비록 한국 육상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은 놓쳤으나, 2022년 유진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세계선수권 입상으로 한국 육상 역사를 다시 썼다.

우상혁은 이번 세계선수권 은메달로 거액의 보너스도 챙겼다.

남자 높이뛰기 2위에 오른 우상혁은 대회 상금 3만5000달러(약 4800만원)를 받는다.

또 대한육상연맹은 2022년 5월에 정한 경기력 향상금(포상) 규정에 따라 우상혁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준다.

연맹이 정한 세계선수권 포상금은 1위 1억원, 2위 5000만원, 3위 2000만원이다.

이로써 우상혁은 도쿄 세계선수권 은메달로 세계육상연맹과 대한육상연



맹으로부터 총 9800만원을 상금을 받는다.

우상혁은 올해 국제대회에서 총 8차례 출전해 우승 7회, 준우승 1회의 성적을 냈다.

지난 3월 난징 세계실내선수권(2m31) 우승으로 상금 4만 달러(약 5500만원)와 대한육상연맹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5월 구미 아시아선수권 우승(2m29)으로 대한육상연맹 포상금 1500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에서 6월(2m32), 7월(2m34) 두 차례 우승해 총 2만 달러(2750만원)를 받았다.

우상혁이 올해 받은 공개된 상금만 2억4000만원이 넘는다.

한편 17일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시상식에 참석한 우상혁은 18일 오후 귀국한다.

/뉴시스

## 한국 남자배구, 11년 만의 세계선수권 3전 전패로 마감

세계선수권대회 16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패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이시나에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8일 필리핀 케손시티에서 열린 2025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 C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핀란드에 세트 스코어 1-3(18-25 23-25 25-17 21-25)으로 졌다.

지난 14일 프랑스와 1차전(0-3)과 16일 아르헨티나와 2차전(1-3)에서 연거푸 졌던 한국은 핀란드와 최종 3차전에서도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3패를 기록, C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한국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무대를 밟았으나 조별리그 3경기에서 전력 차이를 실감하며 승점을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다.

핀란드전에서 신호진(24점·현대캐피탈)과 정현용(16점·대한항공)이 분전을 펼쳐 40점을 합작했으나 승리에 도달하지 못했다. 핀란드의 아웃사이드 히터 루카 마르틸라는 양 팀을 통틀어 최다인 25점을 올렸다.

1세트 초반 5-9로 뒤진 한국은 한때 2

점 차까지 격차를 좁혔으나 핀란드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12-17로 끌려다녔다. 이후 경기의 양상을 뒤집지 못해 첫 세트를 내졌다.

2세트에서는 20-22에서 연달아 점수를 헌납해 위기가 찾아왔고, 이후 22-23까지 따라 붙었으나 세트 포인트에서 점수를 헌납해 또다시 패했다.

한국은 신호진과 황택의의 득점포를 앞세워 3세트를 따냈지만, 4세트 21-21에서 내리 4실점하며 고개를 떨쳤다.

C조에서는 핀란드(승점 6)와 아르헨티나(승점 5), 프랑스(승점 4)가 16강 진출권 2장을 두고 경쟁 중이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이날 오후 7시에 맞붙는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븐 커피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중외곡천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영 윤원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영 GS건설 | 세영 한화/건설 | HDC 엔드산업개발